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봄철 전주동물원 교통관리 강화

전주시, 시내버스 394대 · 60개 노선 대상 민 · 관 합동 암행감찰 제도 운영키로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직접 버스에 탑승해 불편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행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서비스 취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민 · 관 합동 암행감찰 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암행감찰은 최근 난폭운전과 무정차, 불친절 등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운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과 위반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일반 승객의 입장에서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운행 실태를 점검하는 암행감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이용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암행감찰은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 · 관 협력체계(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투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직접 버스에 탑승해 불편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명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암행 감찰은 오는 12월까지 일반 승객으로 탑승해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며, 1회 점검 시 최소 10개 정류장 이상 또는 20분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은 시내버스 394대, 60개 노선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안전 운행 △친절 서비스 △시설관리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안전 운행 분야에서는 난폭운

전과 승 · 하차 안전 확보, 무정차 등을 점검하고, 친절 서비스 분야에서는 승객 응대 태도와 교통약자 배려 등을 확인한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차량 내 · 외부 청결 상태 점검 등 시민들의 이용 환경 제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시는 출근시간과 비혼잡시간, 퇴근시간 등 시간대별로 균형 있게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별 차량 대수와 노선 수를 고려해 점검 대상을 배분함으로써 특정 업체나 특정 시간대에 편

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암행감찰 운영 과정에서 단순히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연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대 위반 사항은 즉시 보고 후 사실확인을 거쳐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일반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은 주간 단위로 취합 · 분석해 운수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조치 결과 제출 이후에도 재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환류관리 체계도 함께 운영되며, 반복 위반 사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추가 점검과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암행감찰 결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정과 서비스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중대 위반 건수와 반복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암행감찰 운영을 통해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요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방문객 급증 대비 5월 5일까지 주말 · 공휴일 교통 대책 추진

전주시가 봄꽃 개화 시기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전주동물원 방문객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교통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봄철을 맞아 전주동물원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원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동물원 진입로 교통 · 주차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봄철 나들이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관광 및 여가 공간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 차량이 증가해 진입로 및 일대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동물원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안전한 방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 · 주차 대책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되며,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관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시는 교통봉사대 인력 7명을 상시 배치해 동물원 주요 진입로와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통제와 교통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인력은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덕진체련공원에서 전주동물원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흐름을 관리하고, 라바몬을 설치해 갓길 주차를 제한하는 등 차량 통제에 나서게 된다.

또한 동물원 주차장이 만차 시에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우회하도록 안내하는 등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주동물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동물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도 함께 활용해 차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주차시설은 △전주동물원 주차장 828면 △덕진삼내배드민턴장 주차장 114면 △김길동 주차장 150면 등이

다. 이외에도 시는 동물원 진입로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활용한 상시 불법주 · 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덕진구청 산업교통과와 협력해 교통 혼잡 발생 시 단속 차량으로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부장은 "봄철을 맞아 동물원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말 방문 시가 급격 대중교통과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고, 현장 교통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시내버스 안전 · 친절 · 정시성 높인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시민 불편 사항은 줄이고, 안전 · 친절 · 정시성은 높이기로 했다.

시는 그간의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가 보편적 수준 측정에 치중돼 이용자가 느끼는 실제 체감도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나설 계획이

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운행'과 '친절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장 밀착형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무정차와 급출발 · 급제동 등 중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재정 지원금 산정 및 서비스 평가에 엄격히 반영하는 등 운수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시내버스의 본질적 가치

인 정시성 확보를 위해 주요 거점별 통과 시간을 준수하는 운행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는 중간 구간별로 균형 있게 신호 위반을 방지해 시민들에게 예측가능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도로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차 여건을 조성하고 기사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안전 운행 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

필수적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운행상의 고충을 수렴하기로 했다.

동시에, 버스회사와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서비스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꾸준히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모든 민원을 정밀 분석해 취약 노선 및 시간대를 집중 관리하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시는 이번 관리 체계 재정비를 통해 대중교통인 전주시내버스의 반복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자전거가 일상이 되는 생태교통 도시 전주' 집중

전주시가 생태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생활 속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데 집중키로 했다.

시는 '자전거가 일상이 되는 생태교통 도시 전주'를 목표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확산 △자전거 이용기반시설 확충 등 자전거 정책 3대 분야,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정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총 189명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시는 이 중 100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24일 전자추첨 방식으로 대상자와 예비자를 결정했다.

이후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첫째 주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시민은 전주시 및 완주군 소재 자전거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전거의 생활 교통 수단화를 촉진하고, 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어린이와 초 · 중 ·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해 자전거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4월 중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 참여형 자전거 행사를 개최하고,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도 지속 추진해 누구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최근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HM) 관련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지 키보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고, 안전지킴이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결혼이민자 고향 나들이 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가 올해도 고국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의 고향 나들이를 지원키로 했다.

시와 전주시가족센터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고향 방문을 지

원하는 2026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과

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한 지 2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접수 기한 내 전주시가족센터에 관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최근 5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 중 경제적 형편

과 모국 방문 횟수, 결혼 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된 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